





학술기획

현정권은 송감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 학생자주성 보장하는 학생회 질실

총괄에 들어가며

'나도 학생이고 학생회의 회원인데 참여할만한 일이 없다' '학생회는 운동권 학생들이 운영하니까 공부나 하다가 졸업해서 취업하면 된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생회 활동을 잘해야 할 텐데...' 등등. 학생으로서,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질곡에 빠진 동국 84년역사의 주인으로서 학생들이 하는 고민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다.

때로는 이해의 부족으로, 때로는 '운동권 학생'이라 불리는 학생회간 부활에 대한 이질감으로 주인으로서 부활 1만 동국인들의 참여는 점점 확연히 갈라지고 무관심해지고 있다. 이것이 현재 동국의 학생회 현실이다.

지난 8월 22대 총학생회가 출범한 이후 학생회는 학자부의 실체, 심각한 종파주의의 횡행, 일반학생들의 학생회로부터의 이탈 등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게 됐다.

이같은 문제점(일반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신(인물화) 학생회활동가들에 대한 불신)은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이여야 할 학생회를 무관심과 불신, 그리고 분열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이제 학생회는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무조건적인 변화나 맹목적 대중주의적 변화가 아닌 그 동안 경험과 평가들속에서 현 학생회의 수준이나 질 그리고 극복되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살펴보는 변화가 절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이들에서는 '진단과 모색 90년대 학생회'라는 기획의도를 총괄하는 의도에서 시급히 청산되고 혁신되어야 할 '종파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학생들의 자주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회의 관점,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소모임의 확대를 통해 '대중을 위한 학생회'가 아닌 대중에 의한 학생회'를 건설하는 원칙에 관해서 단기간 내 다뤄야 한다. 학교건설의 구체적 건설방안도 소모임건설의 실천적 과제는 이후의 지면을 맡아 다루기로 한다.

## 청산해야 할 종파주의의 망령

올해 학생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온갖 '종파주의'로 얼룩져 버린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마치 학생회가 몇몇 정권을 가진 학생들의 소유물인양 학생들을 학생회로 참여시키는 것을 고민하기 보다는 '내 정파로 한사람이라도 더' 혹은 한 정파의 정치일정에 모든 학생들을 짜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기에 일쑤였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학생회활동에 참여하고 주인 의식을 갖기보다는 무관심과 비주체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꾸려나갈 모임이나 학회에 대한 지



< 8 >

도내용은 전무했고, 오직 정파에 의한 틀에 박힌 정치투쟁으로의 내용부여는 없었다. 학생들의 정치의식이나 자주성의 고양은 종파주의에 입각한 현란한 '정치구호'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올해 학생회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운영위원회의 질곡이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바로 정파의 종파주의였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단결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파의 차이만을 부각시켜 단결하지 않으려는 모습만이 팽배했던 것이다.

정권의 불일치가 분열을 조장해주는 결정적인 이유일수는 없다. 더구나 학생회가 정치적 입장 차이를 가진 소수 활동가들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공간일 수는 없다.

학생회는 어떤 한 정파의 소유물이거나 정파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본질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할 학생들의 작은 요구, 작은 투쟁은 깰 수 없는 것으로 학생회가 굴러가고 만 것이다.

대중이 참여하는 공간의 확대를 통해 학생대중에게 검증받고 혁신하는 단결된 모습과는 분명 거리가 먼 것이다.

이제 학생회를 정치투쟁위원회쯤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학생들을 동원해 각성시키는 관료적인 사업작동과 정권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간주해버리려는 종파주의적 헤아림은 없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차야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부터 시작해 들어가야 한다. 과로부터 학생대중들을 만나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스스로의 정견에 입각해 듣기보다는 현실로부터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이 타당할 가라는 틀음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88년의 '화합산과 같이 타올랐던 대중투쟁의 봉화가 지도부의 단결된 모습과 학생대중을 주인으로 세워워나갔던 파장이었음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학생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가

학원내에는 학생회외에도 동문

학생들이 주인으로 활동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조직이다. 내게 대중조직으로서의 발전지향성을 갖는다. 다섯째, 학생들의 종파성을 극복하고 대중에 의해 통일단결되는 조직이다. 여섯째 학생회는 앞으로 변화해나갈 새 사회의 모습을 담보해나가는 조직이다.

학생회는 또한 노동조합 또는 농민회 등 여러 다른 조직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학생회는 학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가지지만 노조에 비하면 집중성과 규율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회는 쉽게 조직화되고 쉽게 정치조직으로서 발전하지만 과거지

향에 과단위 학생회의 실정을 보면 일상활동을 통해 축적된 내용을 담거나 지도할 그릇이 거의 없다. 88년에 각단대와 파에까지 건설했던 학자부와 교파파정체전위들은 거의 와해되어 흔적을 찾기조차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제기하는 교수의 자질, 수업내용의 문제등을 연구하고 조사해 끝마치 이의 관철을 위한 싸움과 일상활동으로의 연계를 생각하기는 무리인 것이다. 거기다가 과단위의 실정에 맞게 지지·지원할만한 상층의 조직또한 힘을 가지지 못한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하층에서 모이고 축적되는 자

◇학생참여 없는 집회... 얼마나 더 계속할 것인가

학생들이 제기하는 교수의 자질, 수업내용의 문제등을 연구하고 조사해 끝마치 이의 관철을 위한 싸움과 일상활동으로의 연계를 생각하기는 무리인 것이다. 거기다가 과단위의 실정에 맞게 지지·지원할만한 상층의 조직또한 힘을 가지지 못한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제기하는 교수의 자질, 수업내용의 문제등을 연구하고 조사해 끝마치 이의 관철을 위한 싸움과 일상활동으로의 연계를 생각하기는 무리인 것이다. 거기다가 과단위의 실정에 맞게 지지·지원할만한 상층의 조직또한 힘을 가지지 못한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하층에서 모이고 축적되는 자

학생들이 제기하는 교수의 자질, 수업내용의 문제등을 연구하고 조사해 끝마치 이의 관철을 위한 싸움과 일상활동으로의 연계를 생각하기는 무리인 것이다. 거기다가 과단위의 실정에 맞게 지지·지원할만한 상층의 조직또한 힘을 가지지 못한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제기하는 교수의 자질, 수업내용의 문제등을 연구하고 조사해 끝마치 이의 관철을 위한 싸움과 일상활동으로의 연계를 생각하기는 무리인 것이다. 거기다가 과단위의 실정에 맞게 지지·지원할만한 상층의 조직또한 힘을 가지지 못한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하층에서 모이고 축적되는 자

◇학생참여 없는 집회... 얼마나 더 계속할 것인가



# 학회·소모임등 참여공간 마련시급 종파주의의 횡행...분열된 모습시정해야

문제는 서로다른 정견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정견의 차이를 이유로 동지적 토론과 진실의 부중을 거부하고 다수적 민주주의의 정견을 현실적 버리듯 하는 행위, 바로 그것이 문제라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 학생회활동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종파주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정견과 그것을 주장하는 개인의 역할을 학생대중전체의 단결된 힘보다 우위에 놓는 소영웅주의에 기인한다. 물론 종파주의의 해악을 강조하고 모든활동가들을 종파주의자로 낙인찍지는 것이 아니다. 단결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고 열광적일 때 표현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을 진정한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논의, 고민은 전무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무적으로 논의하고 대중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자신의 것만을 강요하고자 하는 발상은 학생

회, 친목모임, 동아리 등 여러 종류의 모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학원내에는 학생회 학생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1차적인 조직이라 하는가. 또한 학생회를 왜 학생들의 자주적 단결의식이라 표현하는가.

위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학생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어떻게 조직화 되는가의 문제이다. 학생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고 부사, 학회, 문화소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풍부한 일상활동을 통해 사업과 투쟁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 학생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는 생활단위와 삶의 터전에 기초해서 중앙으로 집중되는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학생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삶과 생활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운동을 시작하는 단위이다. 둘째, 학생들의 여러가지의 이해와 요구를 보편적으로 수렴하는 조직이다. 셋째

의 조직적 기초는 쉽게 강화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학생회의 사활은 '과'에 있으며 과의 대중적 기반과 조직적 수준이 학생운동의 기본적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대중의 자주성, 집단성을 축적하기 위한 과단위의 일상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과단위 일상활동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첫째, 학회운동은 활성화해내는 문제, 학생들의 문화적 지향을 담보할 문화제, 노래제 등의 건설 및 강화의 문제, 그리고 홍보전선활동을 들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각부서, 학회, 소모임의 활동방식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진단속에서 이후추방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각 과단위에서 투쟁과 일상생활을 통해 축적된 집단성, 자주성을 어떻게 상층으로 모아내고 상급단위에서는 이를 어떻게 통일·집중화시켜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성과 집단성을 상층으로 모아내기 위해서는 각급 운영위원회를 내설해야 한다.

단순히 어떤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활동과 일상활동(M.T, 학회건설)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계획과 사업을 안전화하여 내실있는 대안방안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무산되기 일쑤인 총회를 내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총회는 말 그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민주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총회는 최고의결기구이며 집행의 최고기구인 것이다.

총회또한 단순히 모든사람이 모여 임무의 활동방식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진단속에서 이후추방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각 과단위에서 투쟁과 일상생활을 통해 축적된 집단성, 자주성을 어떻게 상층으로 모아내고 상급단위에서는 이를 어떻게 통일·집중화시켜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 ◇글심는 차례

1. 문제는 다시 학생회로
2. 학생회 노선의 역사(84~86년 2학기)
3. 학생회 노선의 역사(87~90 현재)
4. 회조직 골간체계 점검
5. 정치투쟁과 학자부의 문제 -계열체계 I-
6. 학회건설과 선전·문화계열 -계열체계 II-
7. 학생회 활동가의 품성과 자제
8. 총평-정리

생활화·규율화되어야 한다. 항상 아래의 변화에 맞게 이를 모아낼 수 있도록 하여 하부대중에 민감한 간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에 내려가 하부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과 현저해서 하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노력의 성적이 있다. 대상의 투쟁과 준비정도 그리고 지도해야 할 사업의 성격에 맞게 그 방식이 달라진다. 하지만, 올해의 학생회 사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중의 하나가 하방들이 구체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삶의 지향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자주성이라 할 때 우리는 이 자주성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람중심으로 학생회 바라봐야

학생회를 비롯한 조직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는 그것의 근거를 흐르는 원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조직원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조직운영방식과 체계를 규정하는 전반적인 문제이고 조직발달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본으로 학생회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조직은 조직을 구성하는 주체, 즉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표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간의 단결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주적으로 단결하지 못할 경우 목표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일정한 목적의 달성에 알맞게 체계화하여 그 구성원의 집단적 실천이 이루어짐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인간들의 결사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의 형식과 내용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조직의 내용이란 사람들이 수행하는 기능의 총체이고 조직의 형식은 사람들의 결합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은 사람들의 자주적인 단결에 있고 이 단결의 짜임새가 조직의 형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의 발전, 학생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함은 각 주체의 자주적 역할을 높여주고 이를 신뢰하고 애정하는 상호인간관계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원리에 입각해서 학원내에서는 무엇을 기본으로 조직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사람중심의 조직관이 조직체계의 자주성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조직 목적과 관계를 통일적으로 내이고 운용하는 것이라 할 때, 학생회의 조직체계가 목적 그리고 사람관계를 통일적으로 살피는 것로부터

출발해야 학생회 조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첫째 학생회의 조직체제는 자주성을 가진 학생대중이다.

'자주성'이란 함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의 개념을 현실에 투영시켜보면 그것은 '대중들의 생활과 삶의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생대중들이 구체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삶의 지향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자주성이라 할 때 우리는 이 자주성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회에서 사람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학생회에서서는 간부과 간부사이의 단결, 간부와 학생대중과의 단결, 학생대중과 학생대중사이의 단결로 나타나는 관계가 신뢰와 애정에 기초해 단결될 때 학생회가 비로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간부와 간부사이에서는 서로의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기 보다는 종파성을 배제하고 학생대중의 자주성을 중심으로 단결하려는 기본관점이 중요하다.

간부들사이에서 대립과 충돌이 격화된다면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나아가서는 활동가들간의 학생회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다음으로 간부와 학생대중사이의 단결의 핵심은 간부의 책임성과 헌신성이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간부사이의 통일단결로써 간부사이의 통일단결이 되지 못한다면 간부의 헌신성도 개인적 희생의 차원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학생대중들사이의 단결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능케 해주는 상층의 지원일 것이다. 간부화나 뒷풀이, 수많은 소모임공간을 통해 대중들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높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회의 목적, 목표는 무엇인가.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학생회는 학생들의 존재적 특성에서 오는 민족자주교육의 정취, 학문사상의 자유로운 요구와 높은 차원의 정치적 요구에 이르기까지 자주성을 옹호하여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학생회본체의 해결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단결에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사람중심의 조직원리로 대중에 대한 신뢰와 애정에 입각해 일을 해나갈 때 학생회의 기반은 좀더 튼튼해질 것이다.

<사회부>

동서의학의 만남 추구로 仁術의

새 지평을 열어가 '동국의료원'



# 동국한방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837-13

전화:(대)536-5599, 4660(입원실)

다양한 진료과목  
대학의 전문교수 의료진  
최첨단의 시설과 장비



## 수침 크리닉

수침은 과거의 침치료에서 진원본 치료법으로서 양방의 근육, 혈관주사라는 말의 침구의 경막, 경혈과 한방약물의 구성원이 결합하여 침과 약의 이종효과를 가지게 합니다.

- \*뇌졸중, 뇌출혈 등 뇌혈관장애 및 심장순환기 장애
- \*당뇨병 및 갑상선 기능장애 등 각종 내분비계 장애
-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비염, 축농증 등 각종 염증 및 장애
- \*장신 신경계 장애(우울, 불안, 초조, 심동계 불면, 신경쇠약)
- \*피부, 생식기계 장애(정력감퇴, 불임증, 성병)
- \*소화기, 자궁, 운동기계장애(외종, 신경통)
- \*갱년기 장애 및 피로정신장애, 비만증, 천식, 탈모증 기타

## 척추관절센터

척추 관절센터에서는 생체역학을 근본원리로 하는 치료법인 카이로프랙틱을 통해 척추와 골반에 나타나는 이상위치상태(부진탈구)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교정하여 신경기능장애를 회복하고 균형있는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직립하여 움직이므로 척추에 병변을 일으키거나 추골의 위치가 비정상 정도로 정위치가 벗어나게 되면 척추신경 및 혈관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카이로프랙틱진료에 의한 척추 및 사지관절의 종합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통, 좌골신경통, 머리, 목 등의 통증을 탁월한 임상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중풍센터

중풍 센터에서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완비하여 중풍예방치료, 기공요법, 마비복수요법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뇌출혈, 뇌혈전 등으로 인한 마비 \*안면신경마비
- \*특수신경마비 \*혈액순환장애
- \*운동 및 지각신경 마비 \*말초신경장애(중풍 전조증)

수족마비 발레가 기어가는 느낌, 언어장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 감퇴, 두통, 하복을 자주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복이 많이 배출, 어지러움...등.

## 침구치료실

인체의 기혈을 소복시키는 경락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자극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침구요법은 30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광범위한 치료영역과 탁월한 임상효과를 나타냅니다.

침술은 특히 운동기질장애(요통, 경방통, 건반통, 무릎관절통, 사지관절근육통)과 기타 내과적 질환, 부인 소아, 중풍, 정신질환, 피부, 비뇨기계 질환 등에서도 그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만증, 금연, 체질치료 및 몸매관리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각종 현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그 치료율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과 별	담당교수	전 문 진 료 분 야
제 1 내과	이종형	간·폐·계절환:간, 담, 폐, 기관지
제 2 내과	김문곤	심·신계질환:심장혈관, 고혈압, 지혈, 신장, 전립선, 방광, 요도
제 3 내과	안공립	비계질환:위, 소장, 대장, 췌장, 중풍, 뇌혈관장애, 신경마비, 당뇨병
침 구 치료	과 김갑성	통증질환:신경통(머리, 어깨, 무릎, 허리, 팔, 다리), 비만증, 체질치료
물 리 요 법	과 이명중	척추, 골반질환, 디스크, 신경통, 각종마비
부 인 과	안공립	부인병(월경이상, 대하증, 불임증, 산후증)
소 아 과	이종형	소아질환(성장및 발육부진, 호흡기, 대사), 허약아
신 경 정 신 과	김문곤	신경정신질환
안·이비인후과	김문곤	눈, 귀, 코, 입, 인후 질환

사회보도

# 좌담 과학생회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소모임 활성화와 간부혁신이 과제

참석자: 윤현탁 (자기 화학과 학생회장)  
최순호 (자기 국어교육학과 학생회장)  
사회: 남철우 (본사 사회1차장)  
일시: 11월 5일 오후 8시  
장소: 본사 회의실

▲사회자=먼저 내년도 과학생회를 이끌어 가실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신 축하드립니다. 이번 좌담은 과학생회의 강화·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바람이 아니 흔들린다는 말처럼 과학생회를 얼마나 강화·발전 시키느냐가 총학생회와 나아가 전대협을 흔들며 세우는 열쇠라고 할 수

과 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듣지 않은 채 학대표회의 참석은 간부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겠소.



있습니다. 우선, 올해 학생회사업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윤현탁=저는 학생회 사업의 근간이 사회의 변화와 격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으로 보는데, 올해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순호=올 학생회운영에서 높이 평가할 것은 '국교축전'으로 1백60학우중 80여학우가 참여하는, 하나되는 우리의 길이였습니다. 그러나 운영 종료에 있어서 위에서 밀고 밀려온 일방적인 전달이 되는 간부중심의 운영이 아니었나 합니다.

▲사회자=앞으로의 사업기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윤현탁=저의 사업기조는 네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행사를 성원들이 하나될 수 있는 것으로 일구는 것과 기존의 부정적요소로 소수에 의한 학회지배보다 많은 지원으로 성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공분야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는 완전한 교과과정 개편이 절실합니다. 또 민주집중제의 원리에 입각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분임제의 정착과 총회로 성원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밀고 내리는 사업이 아닌 과학생들의 요구를 단대로, 단대의 요구를 총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학생회운영의 방식이라 합니다.

▲윤현탁=무엇보다도 운영위원의 자질이 성숙되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우들이 되고 따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순호=그 말엔 저도 동의합니다. 간부들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간부들이 청년학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한 관점으로 제시할 때만 학생회가 발전될 것입니다.

▲사회자=정치부쟁과 학원 자주화부쟁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과학생회를 이끌어 나갈지 말씀해 주시죠.

▲윤현탁=정치부쟁과 학원 자주화부쟁을 떼어놓고 사고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쟁들을 학우의 일상적인 삶과 연관시킬 수 있는 문화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까. 또 정치부쟁, 학원 자주화부쟁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정립해야만이 사회에 진출해서 또 대학의 주체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과에서 시급한 것은 커리큘럼문제인데 이는 교수와 학생과의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최순호=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과를 기반으로 교과위를 장기간 안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현탁=중장기적, 동북동맹결성 등이 제반의 불확, 인적정원들이 어떤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합니다.

▲윤현탁=그동안의 학자부의 성과에 비해 폐배의식만이 팽배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회자=이제껏 말씀하신 다양한 요구들을, 동국의 52개과의 이해와 요구를 총학생회 체계에 반영시키기위해서 학생대표회의가 강화되었으나 거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내년도 학생대표회의의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과 각오를 갖고 있는지 서로 말씀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최순호=간부들이 성원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이해와 요구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대표회의에 참석하므로 주권적인 제기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대표회의

▲최순호=조금전과 비슷한 말인데,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학원 자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의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학우의 이해와 요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것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한 과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 단결해서 학생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넘어야 할 문제점이란 생각이 드는데.

▲윤현탁=우선 '활동가'라는 신입생, 편견을 질식시켜야 합니다. 서로가 반복하는 감정적 대립보다는 좀더 많은 대화를 통한 화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

▲최순호=앞에서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에서부터 사상부쟁의 장을 열어 서로간에 합의를 찾아나아가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윤현탁=방금 우리학교 학생의 풍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85년이전부터 끊임 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광범위하게 토의해 서로간에 합의를 찾아나가기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과학회 사업내 학우들이 시험문제 고민할때 같이하지 않고 나중에 정치 문제를 논의하자면 가능하겠습니까?

▲윤현탁=과학회만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민형 정적으로 그들의 요구와 이해를 받아 들일때 학생회는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학생회의 강화는 정치부쟁, 학원 자주화부쟁, 나아가 사회변혁운동에 있어서 토대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실천과정에서 검증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록:정리=김경숙기자)

### 현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 KNCC에 시찰자료 요구한 보안사

윤이병이 보안사에서 갖고온 민간인 사찰 자료를 군정국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 찾아와 반향에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서울대 김진표교수를 비롯한 민간인 사찰대상자들이 사찰관계자료에 대한 증거보존신청서를 서울민사지법에 지난 1일 밤으로 써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심선언 이후 인권위 간부들을 미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아울러 지난 1일에는 보안사 사찰대상 민간인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서울대 김진표교수 민주당 노무현 의원등 3백31명은 윤이병이 보안사에서 가지고 말출한 사찰대상자 색인카드 1천3백3장을 비롯해 사찰관계 자료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을 냈다.

려는 것이 다른 아닌 것이다. 한편, 김관석·박형규목사, 노무현 의원, 이소선씨, 김관국 연세대 부총장, 작가 윤정모씨 등 각계인사 5백여명은 지난 1일 오후5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윤석양 후원사업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우정)' 발기인 회의를 갖고 윤이병·신변보호, 보안사 인권부등 폭압정보기구 해체, 군인의 민주적 권리확장 과 군의 증빙과정을 통해 군부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 국민의 일권리 무시하는 처사

### “윤이병 거처대라” 인권위에 억지 사찰중단하고 군임무복귀해야

전달하고 아울러 윤이병의 거처를 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NCC쪽에서는 윤이병의 양심선언의 정소만을 계공했을 뿐 거처는 알수없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국방부쪽의 혐오적응을 거부했다.

우리사회가 군부독재정권임을 예설히 증명해 주는 또한번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서울민사지법에 증거보존신청을 낸 이들에게 손해배상신청이 되어야 한다는 틀린다고 군의 증빙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 국민이 그나라 국민인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사찰자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증거보존신청은 당당한 국민의 권리를 뒤흔트

### 동막로

“어머님이요? 잘모르겠는데요” “총학생회 밑에 있는 건가?” “어머님장 이름이요? 몰라요” 2천4백여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대변한다는 총학생회. 몇몇 여학우들에게 이러한 총학생회에 대해 물어본 결과 얻은 대답이다. “단대선거가 마무리되어가고 새로운 학생회를 준비하는 요즘에 입각하는 총학생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고 높고있다.” “여학생회가 있는 단과대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따라서 서로를 하는 일도 없는 기구가 있어서 뭐합니까?”라는

한 학우의 말처럼 약간 성급하기는 하나 여학생회가 대두되는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만은 아닌듯하다. 총학생회가 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물론 단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등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학우들에

#### 유명무실 논쟁

의해 운영되는것이 아니고 소수 간부들만의 학생회라는 점이다. 대다수의 여학생들이 여흥이 어떻게 구성되고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며 심지어 여학생회장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 더구나 1년

의 예산이 학생회비의 5%나 되는 저지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던 사업은 김진태 학우 실명사건에 T 셔츠 제작·판매와 미처래의 강연·영화상영이 있었던 뿐이다.

또한 여학생들이 시도했던 ‘여름달살이’등 여학생 수련대회도 지극히 저조한 참여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6개단대에서 만이 여학생이 여학생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단과학생회에서조차 구실을 못하는 총학생회가 지금 당면한 과제는 여학우들의 심정부에 깊숙히 뿌리 내리기작업이다. 7대 총학생회의 임무보자가 단과이라는 사실도 뿌리없는 사업의 결과이리라. 유명무실한 중앙기구를 만든데 애초기 보다는 뿌리부터 기르는 총학생회는 1만 동학학우들의 한결같은 희망사항이다. (김경란 기자)

## 아르바이트

**보람 있는 일로 학비를 벌자!**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분투하는 젊은 지성인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아르바이트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알차게 활용함으로써 놀라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을 보람 있는 일로 학비도 벌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유로운 여가활용으로 능력에 따라 월 5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신영출판사**  
277-1549, 267-1902, 274-7145 (동국대학교 후문 근처)

### 동국대학교 개교 84주년 기념 불교경전 독후감 현상모집

- 대상: ①일반인 ②대학생 ③고등학생
- 내용: 불교경전 중 백(경이 길면 일부분들 대상으로 무방함) \*고등학생은 도서관에 비치된 「불교경전」을 대상으로 해도 됨
- 원고의 분량: ①일반 및 대학생 200자 원고용지 20장 내외 ②고등학생 200자 원고용지 15장 내외
- 당선작 및 교료: ①최우수작·1건, 교료 30만원 ②우수작·2건, 교료 20만원 나, 교료부 1건, 교료 15만원 ③가 작·각부별 3건, 교료 각 10만원 ④입선 작·100편, 상품증 ※10편 이상의 입선작을 제출한 학교 또는 단체는 지도서교사 및 지도법사에 대하여 별도 포상함
- 제출마감: 1990년 12월31일까지(단, 당일 우체국소인 유효)
-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역경원 (우편번호:100-715)
- 당선작발표: 1990년 12월26일자 불교신문 및 개별통지
- 심사위원: 사계 권위자를 위촉하며 당선작과 함께 발표
- 시상일시 및 장소: 1990년 12월29일(토요일) 동국대학교 역경원 ※기타 문의사항은 동국대학교 역경원(전화: 직통267-8578, 교환267-8131~9)으로 문의할 것.

주최 동국대학교 역경원  
재단 동국대경사사업진흥회

### 1991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모집

1991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과정 및 학과
  -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 모집인원: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0명
- 시험과목
  - 가. 석사학위과정
    - ①시험과목: ②영어 ③전공 ④기술교사
    - ②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시험, 전공시험은 각 학과별로 공통필수과목에서 출제하며, 기술교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 나. 박사학위과정
    - ①시험과목: ②영어 ③전공(공통, 세부전공) ④제2외국어 ⑤기술교사
    - ②시험내용: ②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시험이며, 전공시험은 학과공통 과목 및 세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기술교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③제2외국어 부과목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한의학과 ④제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 독어, 일어, 일어, 한문, 중국어 중 택일(단, 불어는 인도철학과, 한문은 국어국문학과, 국민윤리학과, 철(동양철학전공)학과에 한함)
- 시험일정
  - 가. 원서교부: '90. 11. 14(수) - 11. 21(수)
  - 나. 원서접수 기간: '90. 11. 19(일) - 11. 21(수)
  -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과
  - 라. 시험일시 및 장소: '90. 11. 30(금) 10:00 동국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직)275-3256, (교)267-8131~9(2253, 2254)

**동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

현정권은 송갑석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 〈발수습기〉 우리 사랑의 힘으로 조국과 민중을 위해...

“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쉽다”는 말이 요즘 와서 나를 안타깝게 한다.

“리드론에 육하원칙을 구비해야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써야하고, 그 사건의 의미와 특기할 사항은 써줘야 하고...” 등등의 수많은 언어들이 멘저 유 트레이닝시간에 쏟아져 나왔지만, 처음 기사라는 것을 썼을 때, 중점을 두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것이 지난 6개월간의 나의 생활이었으리라. 그 ‘무감각’은 ‘신고식’에 먹었던 장승주분위기에 시달리는 황당함에 어쩌면 내가 몸을 가눌 수 있었던 마지막 자세였다고나 할까.

모란이 떨어지는 찬란한 슬픔의 분남부터 시작된 나의 수습기간은 미숙한 품으로 그렇거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

고 그렇게나 펜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렇게 열정거릴 때, 조국의 해방과 민중생존 암살하는 노정권에 분노하고 노동



김계희 記者

해방에 대해 열면 토론을 벌이던 친구들은 직접 투쟁의 선봉에서 실천에 옮기는 모습에 같은 이념의 청년학대로

주는 곳이 되었다. 단행 처음 집회에 나가 낯설은 구호를 외치면서 교동받고 이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농민

## 제 한품 불사르며 사라진 열사를 통해 착취 당하는 노동자와 억압받고 핍박받는 민중을 알았다

들을 알았다. 이 어둔 세상을 밝히고자 제 한품 불사르며 사라지는 열사들을 통해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알았다

서 동침이 하지 못하는 무기력과 부끄러움은 ‘기자’이기 보다는 노동료들과 같이 투쟁의 현장에서 눈물을 쫓아내는 듯한 최후반 속에서 같이 투쟁하는

## 발로 뛰는 선전일꾼의 자세로 1만 동약인과 함께 지면의 벗으로 만나고 싶다

것이 우선이 아닐까하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외세에게 조국이 분단되어버린 이념의 비운의 젊

고, 백골단의 깃발은 군화발속에, 자유하게 뒤덮은 최후반가 스승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념의 민중을 알았다.

## 애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의사는 일만민들의 깃가를 받지 못하고 그 내리라는 피약발이래서 열심히 일했던

아만 하는가. 결코 우리의 중민들이, 노동자들이, 이념의 주인공 민중들이 투쟁하고 깨어 나서서 맞서고 지배당하는 것은

은이는 그 허리가 잘리워져 가슴을 제대로 퍼지지도 못하는 불구의 몸에서 떨쳐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무력함과 부

## 농민들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해야 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랜시간을 일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풀리앗꼭대기에 올라가

아나라. 이렇게 모순과 모순으로 가득찬 이 사회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아무 생각없이 배부른 피지처럼 살아온 지난 나의 생활들을, 현실에 맞추어 한순간의 편안을 위하여 힘든 길을 피하며 살아온 생활들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느끼며 진정 허리질린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며, 이념의 주인공 민중들이 참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쫓아다니는 필요로 서리라.

## 이러한 영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민간TV방송국과 유선방송국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보다 빠르고 보다 선명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위성시대(衛星時代)를 대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는 92년에 국제통신위성인 텔레스트의 회선을 일차에 국내위성망을 개설한다고 한다. 이와함께 난시정지역을 해소하고, 선명한 화면을 송신하기 위해서 95년에 첫번째 통신위성 ‘부궁화’호를 발사하여 위성통신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전자기술의 발전은 VTR(Video tape recorder)의 단점인 화면의 선명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수명이 반영구적인 레이저 디스크(Laser Disc)를 개발함으로써 고화질

가을의 싸늘함에 퇴색한 교정에는 여기저기 무수히 당구는 낙엽을 만만이나 수많은 학우들의 요구가 나를 부르고, 나는 그들을 찾아서 발로 뛰고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식민지하의 청년학대로써 한 줄도 안되는 독재자를 필멸으로 끌어내고, 조국해방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 동대신문사 기자로서 1만 동약 실정과 취지를 세세히 살피고 우리의 요구를 대변하는 선전일꾼의 자세를 몸에 익혀, 1만 동약인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지면의 벗으로 만나고 싶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에야 한다.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 《상경대 야간경영학과》

《최선생》연장공연

극단 연우무대에서 지난 10월중순 막을 올렸던 ‘최선생’이라는 17일까지 동승아트센터에서 연장공연에 들어간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했지만 끝내 학교당국에 의해 해직되었던 최중순교사의 실제이야기를 담은 ‘최선생’은 우리에게 전교조와 참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부)

놀이패 한두레 전태일 열사 20주기 공연 ‘불꽃으로 살아’

놀이패 한두레에서는 올해 전태일 열사의 20주기를 맞이하여 추모공연 ‘불꽃으로 살아’를 통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기까지의 변화의 과정을 묘사하면서 노동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지난 74년 대학 탈출한 출신들이 만든 한두레는 민중생활 현장에서의 공연활동으로 마당극, 마당극의 발전을 이루어 온 바 있다.

## 영상(映像)화 시대

関丙錄  
(예술대학교·영화연출)



스(Video text)를 이용해 안방에서 천연색 동대신문사 기자로서 1만 동약 실정과 취지를 세세히 살피고 우리의 요구를 대변하는 선전일꾼의 자세를 몸에 익혀, 1만 동약인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지면의 벗으로 만나고 싶다.

21세기는 영상(映像)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될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얼굴을 서로 마주 보고 확인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화상전화(Video phone)가 등장하였고, 비디오텍

스(Video text)를 이용해 안방에서 천연색 동대신문사 기자로서 1만 동약 실정과 취지를 세세히 살피고 우리의 요구를 대변하는 선전일꾼의 자세를 몸에 익혀, 1만 동약인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지면의 벗으로 만나고 싶다.

이러한 영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민간TV방송국과 유선방송국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보다 빠르고 보다 선명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위성시대(衛星時代)를 대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는 92년에 국제통신위성인 텔레스트의 회선을 일차에 국내위성망을 개설한다고 한다. 이와함께 난시정지역을 해소하고, 선명한 화면을 송신하기 위해서 95년에 첫번째 통신위성 ‘부궁화’호를 발사하여 위성통신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전자기술의 발전은 VTR(Video tape recorder)의 단점인 화면의 선명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수명이 반영구적인 레이저 디스크(Laser Disc)를 개발함으로써 고화질

(高畫質)과 고품질(高音質)의 새로운 시대를 접하고 있다. 이밖에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3차원의 신비로운 영상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홀로그래피(Holography)와 3D(Three Dimensional)TV의 등장과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에 의한 대형 화면과 고화질 그리고 고품질의 새로운 영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TV방송국이 시작된 1940년대를 TV제1세대라고 하고, VTR과 유선방송이 등장한 1970년대를 TV제2세대라고 한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1990년대는 HDTV의 개발로 TV제3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DTV는, 현재 한국·일본·미국등지에서 이용하고 있는 NTSC의 표준방식은 수평 주사선이 5백25선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1천1백25선으로 달하여 화면은 마치 청사진이나 극장용 영화처럼 선명하다. 이는 인간이 주시안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의 TV화면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4:3인데 비해 HDTV의 비율은 5:3으로 넓기때문에 기존 TV보다 25%나 폭이 넓어 시청자들의 공간과 화면의 공간이 하나로 되어버린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이러한 새로운 영상시대를 맞이하여 HDTV의 개발과 함께 HDTV용 카메라인 Super 16mm와 Super 35mm의 연구 그리고 HDTV용 VTR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수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자칫하면 우리의 안방에서 외국이 앞장서서 인공위성을 통해 직접 받아들이고 하고, 외국이 HDTV로 시청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결정의 판정기능 강화와 함께 부수적으로 부부의 근육과 허벅지 뒷쪽의 근육이, 허리의 근육과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서로 작용을 이루어 근육강화가 된다. 무릎을 구부릴 때는 허벅지 뒷쪽의

양 의 성서(性書)로 일관되는 소녀에게는 그날밤 부부 성행위를 갖도록 할때면 부인에게 일부러 밀리 심부름을 갖다오게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침구학(鍼灸學)에는 축침(足鍼)요법이 하여 발바닥을 인체 전반으로 보고 침·뜸·지압을 이용하여 특정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발뒷꿈치의 꼭지점에서 발가락 정맥까지를 삼등분하여 처음 1/3차는 불면증, 허스테리움의 정신신경계 질환을, 중간1/3차는 소화기계 질환, 발가락 정맥까지 나머지 1/3차는 비노생식기 및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구역으로 설정하여 각 구역마다 경혈을 정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발바닥에 가하는 적당한 맞서지(massage)나 지압은 건강유지의 한 방법이 될수있으며 아울러 감는다는 것은 최고의 건강유지법이 될수있다고 하겠다.

건강하려면 걸어다녀라

결정의 판정기능 강화와 함께 부수적으로 부부의 근육과 허벅지 뒷쪽의 근육이, 허리의 근육과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서로 작용을 이루어 근육강화가 된다. 무릎을 구부릴 때는 허벅지 뒷쪽의

양 의 성서(性書)로 일관되는 소녀에게는 그날밤 부부 성행위를 갖도록 할때면 부인에게 일부러 밀리 심부름을 갖다오게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침구학(鍼灸學)에는 축침(足鍼)요법이 하여 발바닥을 인체 전반으로 보고 침·뜸·지압을 이용하여 특정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발뒷꿈치의 꼭지점에서 발가락 정맥까지를 삼등분하여 처음 1/3차는 불면증, 허스테리움의 정신신경계 질환을, 중간1/3차는 소화기계 질환, 발가락 정맥까지 나머지 1/3차는 비노생식기 및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구역으로 설정하여 각 구역마다 경혈을 정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발바닥에 가하는 적당한 맞서지(massage)나 지압은 건강유지의 한 방법이 될수있으며 아울러 감는다는 것은 최고의 건강유지법이 될수있다고 하겠다.

결정의 판정기능 강화와 함께 부수적으로 부부의 근육과 허벅지 뒷쪽의 근육이, 허리의 근육과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서로 작용을 이루어 근육강화가 된다. 무릎을 구부릴 때는 허벅지 뒷쪽의

양 의 성서(性書)로 일관되는 소녀에게는 그날밤 부부 성행위를 갖도록 할때면 부인에게 일부러 밀리 심부름을 갖다오게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침구학(鍼灸學)에는 축침(足鍼)요법이 하여 발바닥을 인체 전반으로 보고 침·뜸·지압을 이용하여 특정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발뒷꿈치의 꼭지점에서 발가락 정맥까지를 삼등분하여 처음 1/3차는 불면증, 허스테리움의 정신신경계 질환을, 중간1/3차는 소화기계 질환, 발가락 정맥까지 나머지 1/3차는 비노생식기 및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구역으로 설정하여 각 구역마다 경혈을 정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발바닥에 가하는 적당한 맞서지(massage)나 지압은 건강유지의 한 방법이 될수있으며 아울러 감는다는 것은 최고의 건강유지법이 될수있다고 하겠다.

결정의 판정기능 강화와 함께 부수적으로 부부의 근육과 허벅지 뒷쪽의 근육이, 허리의 근육과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서로 작용을 이루어 근육강화가 된다. 무릎을 구부릴 때는 허벅지 뒷쪽의

양 의 성서(性書)로 일관되는 소녀에게는 그날밤 부부 성행위를 갖도록 할때면 부인에게 일부러 밀리 심부름을 갖다오게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침구학(鍼灸學)에는 축침(足鍼)요법이 하여 발바닥을 인체 전반으로 보고 침·뜸·지압을 이용하여 특정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발뒷꿈치의 꼭지점에서 발가락 정맥까지를 삼등분하여 처음 1/3차는 불면증, 허스테리움의 정신신경계 질환을, 중간1/3차는 소화기계 질환, 발가락 정맥까지 나머지 1/3차는 비노생식기 및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구역으로 설정하여 각 구역마다 경혈을 정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발바닥에 가하는 적당한 맞서지(massage)나 지압은 건강유지의 한 방법이 될수있으며 아울러 감는다는 것은 최고의 건강유지법이 될수있다고 하겠다.

결정의 판정기능 강화와 함께 부수적으로 부부의 근육과 허벅지 뒷쪽의 근육이, 허리의 근육과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서로 작용을 이루어 근육강화가 된다. 무릎을 구부릴 때는 허벅지 뒷쪽의

양 의 성서(性書)로 일관되는 소녀에게는 그날밤 부부 성행위를 갖도록 할때면 부인에게 일부러 밀리 심부름을 갖다오게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침구학(鍼灸學)에는 축침(足鍼)요법이 하여 발바닥을 인체 전반으로 보고 침·뜸·지압을 이용하여 특정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발뒷꿈치의 꼭지점에서 발가락 정맥까지를 삼등분하여 처음 1/3차는 불면증, 허스테리움의 정신신경계 질환을, 중간1/3차는 소화기계 질환, 발가락 정맥까지 나머지 1/3차는 비노생식기 및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구역으로 설정하여 각 구역마다 경혈을 정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발바닥에 가하는 적당한 맞서지(massage)나 지압은 건강유지의 한 방법이 될수있으며 아울러 감는다는 것은 최고의 건강유지법이 될수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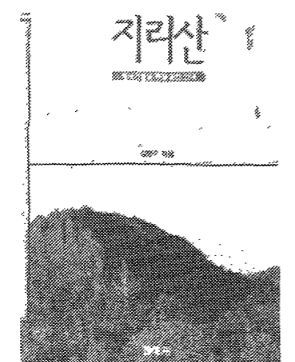
## 문화탐진

### 역사기행을 위한 등산안내서 '지리산'

이책의 제목인 '지리산'은 예로부터 신선이 내려와 살았다는 전설속에서 삼신산이라 불리웠었다.

그리고 민족의 영원한 희망이라는 자신의 이념, 사상을 위하여 추위와 배고픔속에서 이룩업이 쓰러져갔던 수많은 전사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기도하다.

이책은 일반등산안내서적과는 달리 '지리산의 산길을 따라 걷는 전설과 역사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싶다는 저자 김명수(본교 역사교육과 88년졸임)씨의 말처럼 2년여에 걸친 세밀한 탐사와 함께 지리산의 곳



곳에 얽힌 역사의 사실들을 비교·소개해주고 있다. 지리산 최고의 단풍길로 알려진 피아골코스를 살펴보면 피아골이라는 이름의 유래로 6·25 직후 적군과 아군, 즉 피아(彼我)간에 치열한 싸움터였다라는 미스터리(?) 전설을 소개해 주며, 1984년 피아골산장을 지음에 한트러본의 매정된 인물이 발견, 이지역에서 수많은

발치산들이 죽음을 당한 비극의 역사를 보여준다. '역사기행을 위한 등산안내'라는 책소개답게 과거를 되돌아보며 등산을 하려는 이들에게 한눈팔림 권장할만하다.

내년부터 시작될 '주요 산의 휴식년제'로 인해 앞으로 몇년간 지리산이 일산급지가 될듯 싶는데, 남은 기간동안 다녀오고자 한다면 배낭 한가득이기에 이책을 넣어두면 좋을 것이다.

안치환 노래 한마당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멤버로 활동하던 안치환이 독집앨

범 출판과 함께 오는 10월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동승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첫번째 단독 노래공연을 갖는다.

언제나 아름다운 노래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그는 이번 공연에서 '저 창살에 햇살이', '내가 그린 그림', '철의 노동자' 등 우리 귀에 익숙한 20여곡의 노래들을 들려준다.

놀이패 한두레에서는 올해 전태일 열사의 20주기를 맞이하여 추모공연 '불꽃으로 살아'를 통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기까지의 변화의 과정을 묘사하면서 노동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지난 74년 대학 탈출한 출신들이 만든 한두레는 민중생활 현장에서의 공연활동으로 마당극, 마당극의 발전을 이루어 온 바 있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했지만 끝내 학교당국에 의해 해직되었던 최중순교사의 실제이야기를 담은 '최선생'은 우리에게 전교조와 참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부)

결정의 판정기능 강화와 함께 부수적으로 부부의 근육과 허벅지 뒷쪽의 근육이, 허리의 근육과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서로 작용을 이루어 근육강화가 된다. 무릎을 구부릴 때는 허벅지 뒷쪽의

양 의 성서(性書)로 일관되는 소녀에게는 그날밤 부부 성행위를 갖도록 할때면 부인에게 일부러 밀리 심부름을 갖다오게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침구학(鍼灸學)에는 축침(足鍼)요법이 하여 발바닥을 인체 전반으로 보고 침·뜸·지압을 이용하여 특정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발뒷꿈치의 꼭지점에서 발가락 정맥까지를 삼등분하여 처음 1/3차는 불면증, 허스테리움의 정신신경계 질환을, 중간1/3차는 소화기계 질환, 발가락 정맥까지 나머지 1/3차는 비노생식기 및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구역으로 설정하여 각 구역마다 경혈을 정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발바닥에 가하는 적당한 맞서지(massage)나 지압은 건강유지의 한 방법이 될수있으며 아울러 감는다는 것은 최고의 건강유지법이 될수있다고 하겠다.

「맥스웰켄」만이 어울리는 시간이 있다.

젊은 가슴이 먼저 감증을 느낄때 - 캔을 열면 가슴을 적셔오는 맥스웰의 향기 맥스웰 캔커피만의 청량감으로 맥스웰 캔커피만의 또다른 느낌으로 기분까지 새로워지고 싶다. 정통커피음료 맥스웰캔커피 - 커피의 명가 동서식품이 만듭니다.

커피를 느낄때 언제나 맥스웰 캔커피

보도논평

현정권은 송갑석의정을 즉각 석방하라

# 단대선거 내일 당락 확정

## 매년 같은 공약... 발전적 대안 부재 특수성 고려한 정책 제시로 평가받아야

서울캠퍼스 11개 단과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어제(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치러지게 된다.

『**블로그**』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 1차 유세는 지난 5일 오후 3시 학생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관(C201)에서 열렸다. 불대 학생회장 임후보자 문병열(불교·3)은 유세를 통해 불대 분과회 강화, 각과대표까지 참여하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정례회, 불대 내 학생교차 수강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과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1차 유세는 공청회가 지난 2일 정오에 열린 뒤 이어 있었다.

첫 번째 유세에 나온 기호1번 조한근(국문·3)·정미경(영문·2)은 "자주적 학생회를 건설하여 분과대를 사랑과 삶의 공동체로 만들어 대중투쟁의 토대를 튼튼히 하자"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기호2번 김진(국문·3)·정석영(국문·3)은 "진학대학을 토대로 민주민주적 학생회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이과대**』 제7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기호1번 이규욱(물리3)·한문석(수학3)과 기호2번 이진우(물리3)·김주환(수학2)은 1, 2차 유세를 모두 마친 것으로 어제(6일) 오전 8시 부터 투표에 들어갔다.

『**법과대**』 제4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6일 오후 1시 학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국관(M502)에서 열렸다. 이날 유세에서 법대대학생회장 임후보자인 강우식(법·3)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과과정 연구팀 구성, 교수승진, 과학회·동아리의 공간 확보, 예비역·보학생들의 건실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학대**』 제4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다.

지난 31일 1차 유세와 2일 공청회, 5일 2차 유세에서 기호1번 김중욱(정외·3)·김영길(사학·3)은 자율적·민주적·경제적·대중적 학생회 건설, 복원파

로알기운동, 매학기 두번의 공개감사 실시 등을 공약했고, 기호2번 윤우순(정외·3)·이진복(사학·2)은 교과위를 활성화 시켜 학과기후개선, 전공과정의 시험기간 설정, 동국관중축 추진, 식당음식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경상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단 독립후보자인 임지경(경제·3)·최미선(경영·3)은 지난 31일 5일에 1차 유세와 공청회를 갖고 선거공약사항으로 자율적·민주적·대중적인 자주적 학생회 건설, 도서관정비추진, 정치토론회의 정례화, 본인토의 활성화, 교과과정 연구 활성화, 사물함 증설 등을 내세웠다.

『**농과대**』 제23대 학생회장 선거 독립후보자인 류기우(농학85)군의 유세가 오

늘 7일 1시 해화관 로비에서 열렸다.

『**공과대**』 제13대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유세가 지난 1일과 5일 2차례에 걸쳐 원동관에서 열렸다. 단독 임후보자 홍중욱(전기·3)군은 기존의 열악했던 '정치문제'에 대하여 '노태우파소정권 완전자도'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고 '학원 자주화 투쟁'에 대하여 '복지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계적 마스터 플랜을 제시, 등록금 투쟁에 대하여 '계열별 연차제 등록금 인상안' 채택을 외쳤다.

『**생과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 1, 2차 유세가 지난 1일, 5일 오후 2시 학림관에서 열렸다.

『**남과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국교·3) 이남숙(국교·3)은 비사범대생

의 교직진출을 제한하고, 학림관 주변의 환경미화, 사범대 도서관 방음벽등의 복지사업과 여론수렴으로 다양화, 전문화를 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2번 홍정(국교·3), 정민영(수교·3)은 과별연대와 소모임 활성화와 사범대 문학 분위기 조성, 민주적인 학생회를 건설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예술대**』 예술대는 단과장을 미술학과, 연영과 2개학과가 번갈아 겸임한다는 선거 특례조항에 따라 올해는 자기 연영과 학생회장이 단과장을 맡고 자기 미술학과 학생회장이 부단과장을 맡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다.

『**이과대**』 제7대 총학생회장과 여학생회장 임후보자 1차 유세 및 공청회가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 동국관(L501)에서 1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과대**』 제7대 총학생회장과 여학생회장 임후보자 1차 유세 및 공청회가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 동국관(L501)에서 1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기호1번 김경규(야간경제·2)·하주영(야간경제·2)은 민중해방, 일지단결, 민주적학생회 건설 등을 구호로 외쳤고 기호2번 송진태(야간부·3)·홍현기(야간회·2)는 자주·민주·통일, 반미구국투쟁을 주장했다.

한편 야간강좌 총 여학생회 후보 최현희(야간전산·2)김혜정(야간산공·2부)은 자주적 여학생회등을 구호로 외쳤다. (취재부)



사범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 2차 유세가 지난 5일 학림관 앞에서 열렸다. 대중에 깊숙이 뿌리박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회 건설을 다짐하며 짧은 추격을 연출하고 있다. (글·사진=김영란 기자)

## 2학기 장학금 집계 발표 3천여명에게 10억6천만원 지급

서울캠퍼스 장학과는 지난 11월 9일 오후 2학기 장학금 지급현황을 최종 집계 발표했다. 재학생의 1/3에 해당하는 3천 299명에게 총 10억5천9백34만 8천원이 지급된 2학기 장학금에 교내 장학금으로 2천7백51명에게 9억3천3백13만 1천원, 교외 장학금으로는 2백78명에게 1억2천6백21만7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내 장학은 총장(4백6명, 1억8백94만6천1백원)·승진추진(51명, 2천6백85만1천5백원)·보훈(96명, 3천8백23만2천원)·체육기(1백명, 8천2백59만2천원)·대학수석(11명, 8백48만8천6백원)·근로(1백9명, 6천9백92만3천5백원)·가사(2백7명, 6천1백13만4천원)·교원자녀(88명, 2백64만원) 등이며, 교외 장학은 동문회(38명, 1천3백86만4천7백원)·장학법인(1백38명, 6천9백51만5천6백원)·공공법인(1백2명, 4천2백83만6천7백원) 등이다.

이런 2학기 장학금지급내용은 지난 1학기와 비교할때, 교내 장학은 2백11명(4천6백60만9천1백50원)이 증가했으며, 교외 장학은 26명 (91만6천6백원)이 감소했다. 교내 장학의 증가원인은 총장, 학과수석, 차석, 우수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교외 장학의 감소원인은 장학법인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신홍자 장학금지가 지난 1학기에만 산정됨에 따라 원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 과축제 펼쳐져 '가람제-누리제' 동국관서

경상대 경영학과 제2회 '가람제'가 학생회사임단위 평가와 향후 발전하는 학생회 건설을 취지로 오는 9-10일 양일간 교내일원에서 열렸다.

첫날인 9일은 개막식에 이어 오후 1시부터 LA01(동국관)에서 '중소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으며, 오후 4시에는 동국관일에서 노동자 계급의 삶을 통해 민중의 세태상을 향한 투쟁을 연출한 마당극이 펼쳐진다.

10일은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와 동문 선·후배와의 '경영인의 밤'이 있게 된다.

한편 무역학과 제4회 '누리제' 한마당이 무역공통체정신의 고양과 기간의 학생회사업의 고취를 위하여 열렸다.

폐막식은 오후 6시 학생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해광장에서 열렸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노랫사 공연에 이어 부총학생회장 이진환(경영·4)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폐막식은 총학생회장과 각단과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가 나와 총학생회장의 해설에 각단과 후보자들이 불을 이어 받으며 새로운 세로운 91년 학생회를 기약했다.

여총, '90가을 여성선언' 여성관-이성관-연애관 주제로

'90가을 여성선언'이란 주제로 여총에서는 지난 24-25일 양일간 교내 일원에서 영화상영 및 강연회 등을 가졌다.

여성의 올바른 취업과 바람직한 여성관·이성관·연애관을 모색, 이후 여학생들의 활동주체를 마련키 위해 열린 이번 선사는 지난 24일 오후 1시 불

동연장선거 오는 14일 실시 최성순·황선미조 단독 입후보

제7대 동아리연합회장 선거가 오는 14일 오후 5시 소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는 동아리 분과체제의 안정화, 예산집행의 체계화, 정치투쟁의 선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최성순(홍사단 이과·1)·황선미(동

## '90백상제전' 화합 속에 성황리 마쳐 노찾사 공연-노래 한마당등 다채롭게 진행

90백상제전이 '나·너·우'와 그리고 전진이라는 구호 아래 총학생회주최로 지난 31일부터 2일까지 교내일원에서 열렸다.

『**31일, 화합**』 화석이 지난 31일 오후 12시부터 민해광장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참여 부족으로 장소를 대운동장으로 옮겨 오후 2시부터 5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일, 나눔**』 90백상제전 개회식 및 폐회식 등 행사가 있었는데, '백주말마시기'나 '우유말마시기' 등에 각각 1백

여명이 참가, 준결승을 치르고 결승에서 6인이 경연을 보였다.

『**동요인 노래 한마당**』 오후 5시 학생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강당에서 열려 불대 풍물패가 1위를 차지했다.

『**2일, 화합**』 백상제전 농구 대회가 13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지난 31일부터 토너먼트를 거쳐 이날 결승전에서 이과대대표팀(통계학과)이 사범대대표팀(연합)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축구경기는 오후 1시 4강전출진이 결승전을 벌여 야간전산과가 화강파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마라톤대회가 동대문 일대에서 2백5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백상제전 마지막 행사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 초청공연이 지난 2일 오후 5시 학생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해광장에서 열렸다.

폐막식은 오후 6시 학생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해광장에서 열렸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노랫사 공연에 이어 부총학생회장 이진환(경영·4)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폐막식은 총학생회장과 각단과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가 나와 총학생회장의 해설에 각단과 후보자들이 불을 이어 받으며 새로운 세로운 91년 학생회를 기약했다.

『**이과대**』 제7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기호1번 이규욱(물리3)·한문석(수학3)과 기호2번 이진우(물리3)·김주환(수학2)은 1, 2차 유세를 모두 마친 것으로 어제(6일) 오전 8시 부터 투표에 들어갔다.

『**법과대**』 제4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6일 오후 1시 학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국관(M502)에서 열렸다. 이날 유세에서 법대대학생회장 임후보자인 강우식(법·3)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과과정 연구팀 구성, 교수승진, 과학회·동아리의 공간 확보, 예비역·보학생들의 건실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학대**』 제4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다.

지난 31일 1차 유세와 2일 공청회, 5일 2차 유세에서 기호1번 김중욱(정외·3)·김영길(사학·3)은 자율적·민주적·경제적·대중적 학생회 건설, 복원파

『**경상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단 독립후보자인 임지경(경제·3)·최미선(경영·3)은 지난 31일 5일에 1차 유세와 공청회를 갖고 선거공약사항으로 자율적·민주적·대중적인 자주적 학생회 건설, 도서관정비추진, 정치토론회의 정례화, 본인토의 활성화, 교과과정 연구 활성화, 사물함 증설 등을 내세웠다.

『**농과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 1, 2차 유세가 지난 1일, 5일 오후 2시 학림관에서 열렸다.

『**남과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국교·3) 이남숙(국교·3)은 비사범대생

『**공과대**』 제13대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유세가 지난 1일과 5일 2차례에 걸쳐 원동관에서 열렸다. 단독 임후보자 홍중욱(전기·3)군은 기존의 열악했던 '정치문제'에 대하여 '노태우파소정권 완전자도'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고 '학원 자주화 투쟁'에 대하여 '복지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계적 마스터 플랜을 제시, 등록금 투쟁에 대하여 '계열별 연차제 등록금 인상안' 채택을 외쳤다.

『**생과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 1, 2차 유세가 지난 1일, 5일 오후 2시 학림관에서 열렸다.

『**남과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국교·3) 이남숙(국교·3)은 비사범대생

총장선임은 구상무역(?)

○...나라의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상무역이 요즘은 동약에서도 시행한다고 알아본후, 양산에 떡을 권 재단이사회가 교묘히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구상무역(Barter system)이라는 협상무역(?) 설에 의하면 이번학기까지도 구상무역이 권자이고 내년에는 교수회서 선출한 2명의 후보중 한명이 권자에 오를 것이라는 재단의

『**이과대**』 제7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기호1번 이규욱(물리3)·한문석(수학3)과 기호2번 이진우(물리3)·김주환(수학2)은 1, 2차 유세를 모두 마친 것으로 어제(6일) 오전 8시 부터 투표에 들어갔다.

『**법과대**』 제4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6일 오후 1시 학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국관(M502)에서 열렸다. 이날 유세에서 법대대학생회장 임후보자인 강우식(법·3)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과과정 연구팀 구성, 교수승진, 과학회·동아리의 공간 확보, 예비역·보학생들의 건실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학대**』 제4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다.

지난 31일 1차 유세와 2일 공청회, 5일 2차 유세에서 기호1번 김중욱(정외·3)·김영길(사학·3)은 자율적·민주적·경제적·대중적 학생회 건설, 복원파

『**경상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단 독립후보자인 임지경(경제·3)·최미선(경영·3)은 지난 31일 5일에 1차 유세와 공청회를 갖고 선거공약사항으로 자율적·민주적·대중적인 자주적 학생회 건설, 도서관정비추진, 정치토론회의 정례화, 본인토의 활성화, 교과과정 연구 활성화, 사물함 증설 등을 내세웠다.

『**농과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 1, 2차 유세가 지난 1일, 5일 오후 2시 학림관에서 열렸다.

『**남과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국교·3) 이남숙(국교·3)은 비사범대생

『**공과대**』 제13대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유세가 지난 1일과 5일 2차례에 걸쳐 원동관에서 열렸다. 단독 임후보자 홍중욱(전기·3)군은 기존의 열악했던 '정치문제'에 대하여 '노태우파소정권 완전자도'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고 '학원 자주화 투쟁'에 대하여 '복지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계적 마스터 플랜을 제시, 등록금 투쟁에 대하여 '계열별 연차제 등록금 인상안' 채택을 외쳤다.

『**생과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 1, 2차 유세가 지난 1일, 5일 오후 2시 학림관에서 열렸다.

『**남과대**』 제23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국교·3) 이남숙(국교·3)은 비사범대생

『**이과대**』 제7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기호1번 이규욱(물리3)·한문석(수학3)과 기호2번 이진우(물리3)·김주환(수학2)은 1, 2차 유세를 모두 마친 것으로 어제(6일) 오전 8시 부터 투표에 들어갔다.

『**법과대**』 제4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6일 오후 1시 학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국관(M502)에서 열렸다. 이날 유세에서 법대대학생회장 임후보자인 강우식(법·3)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과과정 연구팀 구성, 교수승진, 과학회·동아리의 공간 확보, 예비역·보학생들의 건실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학대**』 제4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다.

지난 31일 1차 유세와 2일 공청회, 5일 2차 유세에서 기호1번 김중욱(정외·3)·김영길(사학·3)은 자율적·민주적·경제적·대중적 학생회 건설, 복원파



## '나누는 손길이 있어 더 넉넉한 우리들의 삶'

"서울 큰 아한데 해발 부친다더니 나락은 쯤었는가?" 가을밤 가지지 않은 얼굴로 안부를 물어오는 이웃의 따뜻한 말에서 울હે도 포근한 겨울을 기대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면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함께도 털어놓고, 호박·가지도 팔려주고, 햇곡식으로 떡이라도 넉넉히 빚어 힘들 때마다 서로 함께하며 스스럼없이 도와준 이웃에게 인심도 건네고... 이렇게 우리 부모들의 한해는 작은 인정을 나누는 손길 한해에 걸맞습니다. 씨뿌리고 애써 가꾸어,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지들관앞에서 다시 씨뿌릴 봄을 기약하는 우리 부모들의 삶-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이 닿아있는 뿌리이며 서로 아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맑은 사랑의 터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나간 겨울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서, 이 땅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하며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아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